

442  
vol.

Gyeongsangbuk-do Magazine  
아름다운 경북 특집호

# 어게인 경북

길 위에서 만나는 경북  
미래를 향해 걷다

발간등록번호 75-6470000-000772-08



천년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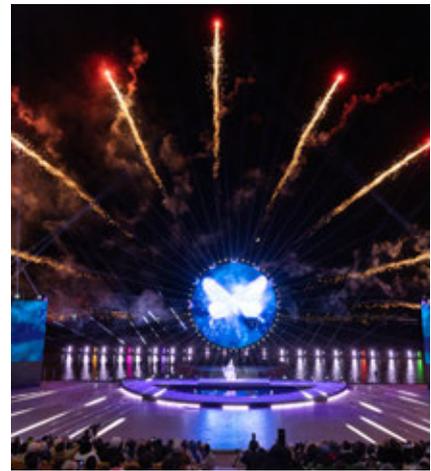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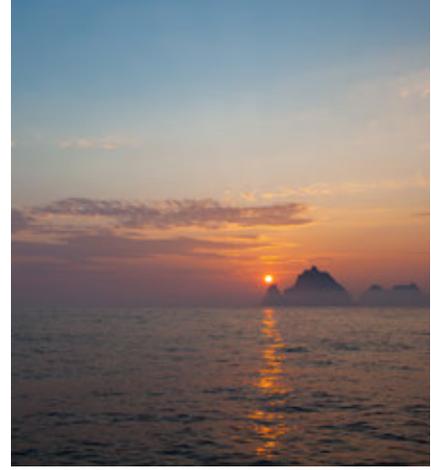
아침 햇살이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유리벽을 비춘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오가던 회의장은 어느새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시간은 경북의 땅에 새로운 흔적을 남겼다. 산은 여전히 푸르고, 바다는 쉼 없이 파도를 보낸다. 백두대간의 능선에서 동해의 물결까지, 경북은 자연의 결을 따라 이어진 하나의 생명처럼 살아 있다. 그 사이로 도시와 마을, 산업과 문화가 어깨를 맞대고 있다. 천년의 역사와 산업의 미래가 함께 숨 쉬는 곳, 이곳에서 경북은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이어간다. 산의 품 안에서 치유를, 바다의 길 위에서 도전을, 그리고 사람의 일상 속에서 희망을 찾아낸다.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남긴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세계와 연결된 경험이자 경북이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다. 이제 경북은 그 길을 따라 사람과 자연, 산업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의 풍경을 그려 나간다.



# Contents

vol. 442

아름다운 경북 특집호



Gyeongsangbuk-do Magazine

발행처 경상북도 발행인 이철우 편집인 임대성

발행일 2025년 11월

문의처 경상북도 대변인실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4285

홈페이지 [www.gb.go.kr](http://www.gb.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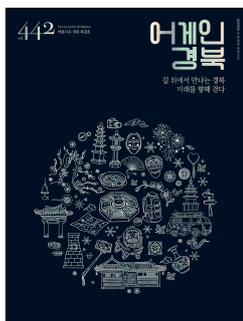
어게인 경북은 E-Book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게인 경북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어게인 경북에 실린 글과 사진은 경상북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어게인 경북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경북의 자연과 맛, 축제와 산업이 어우러져  
전통의 뿌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 길 위에서 만나는 경북

## 자연의 길

- 08 **사계가 빛은 길** 사계의 색으로 물드는 경북, 그 길 위에서 계절이 쉰다
- 16 **첫 빛이 트는 길** 동해의 첫 빛, 희망을 열다
- 24 **백두대간이 품은 길** 백두대간, 치유의 숲을 걷다

## 문화의 길

- 32 **유네스코, 기억의 길** 역사가 남긴 기억, 자연이 써 내려간 시간
- 44 **장인, 혼의 길** 장인의 길을 따라 걷는 하루, 손끝으로 만나는 전통

## 삶의 길

- 52 **핫플레이스, 그 길** 도심 속 경북, 길 위의 감성
- 56 **축제가 피는 길** 사계의 맛과 멋 그리고 낭만, 경북이 축제로 물들다
- 62 **경북 미식의 길** 길 위의 한 끼, 경북을 맛보다

## 내일의 희망 길

- 70 **빛에 물든 길** 별·불빛·불꽃으로 수놓은 경북 야행
- 78 **함께 걷는 치유의 길** 산불 피해지역으로 떠나는 착한 관광

자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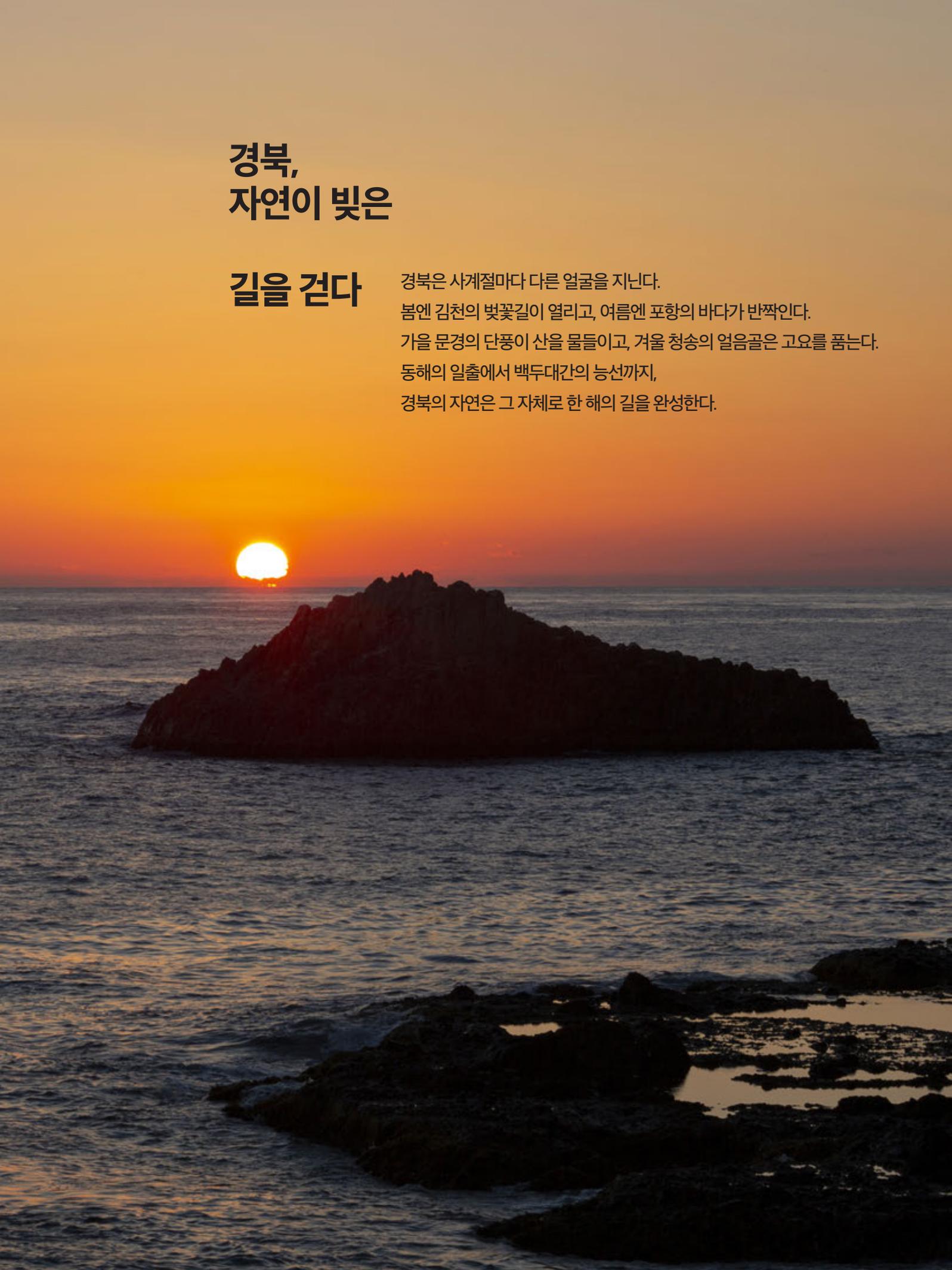
길



# 경북, 자연이 빛은

## 길을 걷다

경북은 사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지닌다.  
봄엔 김천의 벚꽃길이 열리고, 여름엔 포항의 바다가 반짝인다.  
가을 문경의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겨울 청송의 얼음골은 고요를 품는다.  
동해의 일출에서 백두대간의 능선까지,  
경북의 자연은 그 자체로 한 해의 길을 완성한다.



# 사계의 색으로 물드는 경북, 그 길 위에서 계절이 쏜다

봄: 김천 연화지의 벚꽃  
물 위로 내리는 꽃눈, 그 사이로 봄이 흐른다

연화지는 조선 시대 초기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곳으로, 예부터 풍류객들이 연못 가운데 섬을 만들고 '봉황대' 정자에 올라 시를 읊던 명소였다. 지금은 시민의 산책길로 다시 태어나 봄이면 호수 둘레 1.3km를 따라 벚꽃이 만발한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물 위로 흩날리며 분홍빛 물결을 그리고, 해 질 무렵 조명이 켜지면 호수는 다시 은은한 빛의 정원으로 변한다. 연화지는 계절마다 얼굴을 바꾸지만, 봄의 풍경은 언제나 가장 화사하다.

📍 경북 김천시 교동 820-1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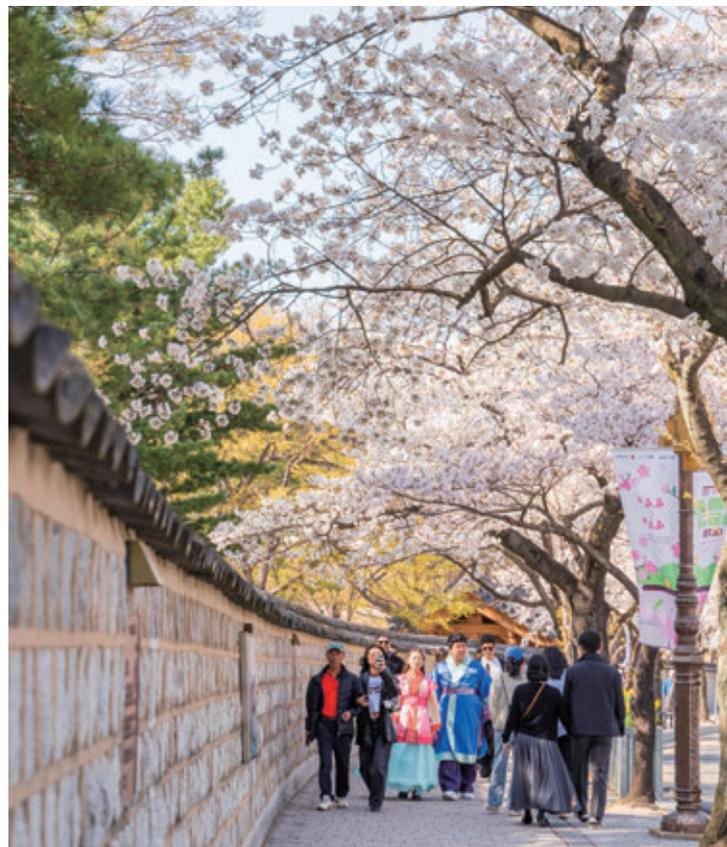
### 봄: 경주 보문관광단지&대릉원 돌담길 천년의 도시에 내린 벚꽃, 봄이 피어나다

보문호를 중심으로 한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매년 4월이면 벚꽃이 만개해 호수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든다. 수면 위로 흩날리는 꽃잎과 그 사이를 지나가는 자전거 행렬이 봄의 정취를 더한다. 밤이면 호수길 조명이 켜져 '보문호 벚꽃길 야경'이 완성된다.

대릉원 돌담길은 고분의 둥근 선과 벚꽃이 어우러져 경주의 봄을 대표한다. 담장 너머로 떨어지는 꽃비 사이로 한복 차림의 여행객들이 오가며 천년 고도의 봄빛을 완성한다.

📍 경북 경주시 신평동(보문관광단지)

경북 경주시 황남동 493-26(대릉원 돌담길)



## 여름: 안동 만휴정

### 바람이 머물다 간 자리, 여름의 심을 누리다

조선 중기 안동 출신의 문신 김계행이 지은 만휴정은 푸른 숲과 계류가 어우러진 대표 여름 명소다. '만휴(晩休)'는 '늦은 휴식'이란 뜻으로 자연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으로 등장한 뒤 고요한 정자의 풍경은 '시간이 멈춘 공간'으로 더 알려졌다. 맑은 물 위에 걸린 나무다리를 건너면 정자가 숲속에 그림처럼 앉아 있고, 수면에 비친 기와와 나무 그림자가 맞닿으며 여름날의 고요함이 완성된다.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목계하리길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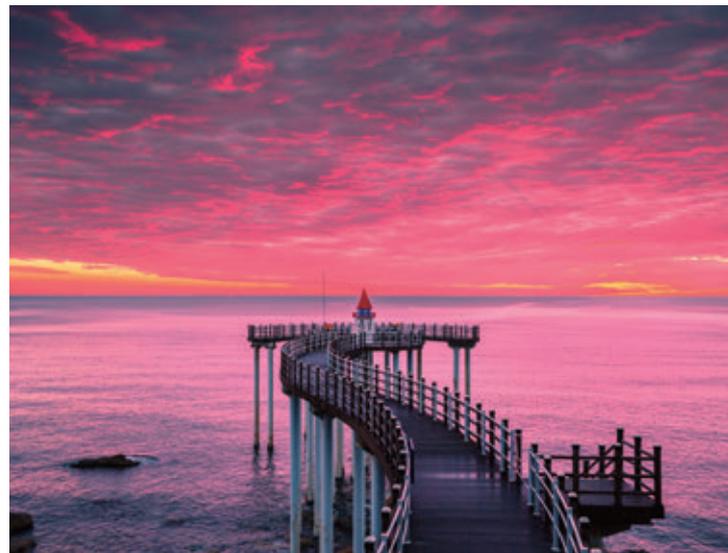


# Summer

## 여름: 포항 이가리 닻 전망대 바다의 숨결 위로, 여름이 닻을 내린다

‘포항 12경’ 중 하나로 닻 모양의 전망대 끝에서 바다를 마주하면 수평선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여름이 펼쳐진다. 이가리 닻 전망대는 포항의 대표 해양관광 명소로, 높이 10m·길이 102m의 해상 보행교다. 닻을 형상화한 구조물은 ‘바다의 도시 포항’을 상징하며, 우리 영토 독도를 향해 뻗어 있다. 전망대 아래로는 해송 군락과 이가리 간이해수욕장의 푸른 바다가 이어지고, 멀리 포항의 명산 주상절리와 조경대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산67-3





# Autumn

## 가을: 문경 봉명산 출렁다리 한 걸음마다 출렁이며, 가을은 그렇게 지나간다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흔들리는 다리, 한 걸음마다 시간이 깊어진다. 가을바람에 실려 온 낙엽이 발끝에 닿을 때, 마음도 잠시 멈춰 선다. 문경 봉명산 출렁다리는 길이 160m, 폭 1.5m, 높이 약 25m의 현수교로, 스틸그레이팅과 유리로 이루어진 바닥이 짜릿한 스릴을 선사한다. 500여 개의 계단을 따라 오르는 숲길 끝, 다리 위에서는 해발 1,108m 주흘산의 능선과 조령천이 흐르는 문경 읍내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온천강변1길 27



## 가을: 영양 자작나무숲

### 하얀 나무들이 물드는 순간, 가을은 완성된다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의 자작나무숲이 단풍빛으로 물들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자아낸다. 하얀 줄기 사이로 붉고 노란 잎이 내려앉아 마치 수목화를 보는 듯한 고요한 풍경이 펼쳐진다. 해발 800m 검마산 자락에 1993년 인공 조림된 이 숲은 현재 축구장 40개 규모인 34ha에 달한다. 2020년 ‘국유림 명품 숲’으로 선정된 뒤 전국적인 생태 트레킹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계절의 걸을 한층 더 깊게 만든다.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522





## 겨울: 울릉도 송곳봉

### 차가운 파도 위로, 겨울의 빛이 솟는다

울릉군 북면 천부리 일대에 솟은 송곳봉은 해발 430m의 거대한 암봉인 송곳봉은 마그마의 통로인 화도가 굳어 만들어진 조면암질 용암돔이다. 점성이 높은 용암이 천천히 솟아오른 뒤 침식되며, 지금처럼 뾰족한 봉우리 형태가 남았다. 겨울이면 바위 절벽에 눈이 내려앉고, 파도가 부딪치며 흰 포말이 피어난다. 일출 무렵, 바위 뒤편에서 떠오르는 햇살이 흰 눈과 검은 화산암을 물들이면 섬의 겨울은 장엄하게 빛난다.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산21-1

## 겨울: 청송 얼음골

### 하얀 숨결이 얼어붙을 때, 겨울은 완성된다

자연이 만든 하얀 조형 속에서 겨울은 가장 순수한 얼굴로 선다. 청송 얼음골은 여름에도 얼음이 얼고, 겨울에는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독특한 역전 지형이다. 바위 아래의 틈새에서 불어오는 바람(풍혈)이 찬 공기를 만들어내고, 햇빛이 닿지 않는 암반 속에서 그 냉기가 머문다. 이로 인해 여름에는 주변보다 4~6℃ 낮은 기온을 유지하며, 예로부터 천연 피서지로 불려왔다. 겨울이 되면 골짜기마다 고드름과 빙벽이 자라나, 자연이 만든 거대한 조각품처럼 반짝인다.

📍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 1



Winter



경북의 새벽은 동쪽 바다에서 시작된다. 독도의 첫 빛이 울릉도로 번지고, 그 빛은 포항과 경주, 영덕과 울진으로 이어진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의 희망을 다시 맞이한다.

# 동해의 첫 빛,

# 희망을 열다

*The first light of the East Sea opens hope*



Dokdo

—

01

**독도**  
대한민국의 첫 해, 영토의 첫 빛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 두 개의 섬이 서 있다. 해가 바다 위로 솟을 때, 그 빛은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땅을 비춘다.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진 독도는 국토 최동단에 위치한다. 가장 먼저 빛이 닿는 곳, 대한민국의 새벽은 독도에서 시작된다.





**Pohang**

—

**02**

**포항: 호미곶**

**한반도의 손끝, 희망의 첫 빛**

거대한 '상생의 손' 사이로 붉은 태양이 떠오른다. 손끝에 닿은 빛이 바다 위로 퍼질 때, 한반도의 하루가 시작된다. 호미곶은 한반도 지형상 가장 동쪽 끝, '호랑이 꼬리의 끝자락이자 손끝'으로 불리는 지점이다. 매년 새해 첫날 열리는 '호미곶 해맞이축전'에는 희망의 해를 맞이하려는 수만 명의 발길이 모인다.





**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파도 위를 따라 걷는 아침의 길**

동해를 따라 굽이치는 길 위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길동무가 된다. 수평선 너머로 솟는 태양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온몸에 스민다. 총 길이 58km, 5개 코스로 이루어진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해안 절벽·등대·어촌을 잇는 동해안 대표 트레킹 코스다.



## Ulleungdo

—  
03

### 울릉도

#### 등대 너머로 울릉도의 새벽이 열린다

울릉도의 하루는 저동향에서 시작된다. 동해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면 그 빛이 등대와 촛대바위를 차례로 비추며 섬을 밝힌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선이 잔잔한 파도를 가르고, 항구는 서서히 아침의 빛으로 깨어난다. 파도와 사람의 숨결이 섞인 이곳에서 울릉도의 또 다른 하루가 열린다.



Gyeongju

04

## 경주: 문무대왕릉

### 왕의 바다 위로 솟는 신라의 태양

바다 한가운데 솟은 바위섬 위에, 왕의 혼이 파도와 함께 잠들어 있다. 신라 문무대왕은 사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에 따라 이 바다에 수증릉으로 안치되었다. 일출시 붉은 태양이 수증릉 뒤로 떠오르는 장면은 신라의 역사와 현재를 잇는다.





Yeongdeok

—  
05

**영덕: 삼사해상공원**  
**바람과 빛이 머무는 언덕**

해안 절벽 위로 바람이 스치고, 그 위를 타고 아침 햇살이 오른다. 등탑 아래서 바라보는 수평선은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찰나의 경이다. 공원에는 경북대종과 망향탑, 해안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바다를 가까이 두고 걸으며 풍경을 천천히 느낄 수 있다.



—  
06

**울진: 죽변항**  
**고요한 항구에 피어나는 새벽빛**

고요한 어항 위로 햇살이 번지면, 정박한 배들의 돛이 천천히 깨어난다. 새벽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작은 파도에도 빛이 스며든다. 죽변항은 <폭풍 속으로> 등 다수의 드라마 촬영지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장관이다.

**울진: 등기산 스카이워크**  
**유리 위를 걷는 아침**

유리 바닥 아래로 파도가 부서지고, 햇살은 바다 위를 걸으며 천천히 높아진다. 발끝으로 새벽을 밟는 듯한 순간, 동해의 아침이 완성된다. 절벽 높이 20m, 길이 135m의 스카이워크는 빛과 바다를 함께 밟는 듯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 백두대간, 치유의 숲을 걷다

한반도의 등뼈라 불리는 백두대간은 북으로 백두산에서 시작해 남으로 지리산까지 1,625km를 잇는다. 그 웅대한 산줄기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이 경상북도를 지난다. 봉화에서 영주, 문경을 거쳐 청도와 성주로 이어지는 이 길은 한반도의 중심을 관통하며 수많은 생명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 바람이 머무는 숲, 물이 쉬어가는 계곡, 그리고 길 위를 걷는 이들의 숨결까지. 백두대간은 단순한 산맥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살아 있는 심의 공간이다.



## 백두대간, 생명의 시간을 품은 숲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태백산 자락 5,179ha에 펼쳐진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수목원. 이곳에는 자생식물 1,728종, 특산식물 163종, 재배식물 2,446종, 희귀식물 318종이 살아 숨 쉰다. '희귀·특산식물보전센터'와 세계 유일의 지하 종자 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가 자리해 생명의 다양성을 지키고, 산림치유원과 38개의 전시원이 사계절 다른 풍경을 선물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트레킹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의 향기와 흙냄새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늦춰지고, 숲은 말없이 손을 내민다.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501



## 산과 물, 마을이 함께 빛은 치유의 풍경 영주 소백산 & 무섬마을

1987년 제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소백산은 면적 322km<sup>2</sup>에 달하는 영남의 거산이다. 비로봉(1,439m)을 중심으로 국망봉과 연화봉, 도솔봉이 백두대간 능선을 따라 이어지고, 봄에는 철쭉이 비단처럼 산을 물들이며, 겨울에는 설화가 장중한 백색의 풍경을 만든다. 그 아래 내성천 물길 위로 떠 있는 듯한 무섬마을은 300년 세월을 품은 고택들이 강물과 함께 숨 쉬는 곳이다. 상징처럼 놓인 길이 150m의 외나무다리를 건너거나, 완만한 도로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도 좋다. 물소리와 바람, 그리고 시간이 머무는 풍경 속에서 사람은 조용히 심을 배운다.

- ④ 소백산국립공원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로 476
- ④ 무섬마을 경북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234번길 31-12





## 역사의 숨결이 이어지는 옛길, 쉼의 시간을 걷다 문경 문경새재 과거길

조선시대 한양으로 오르던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지나던 길, 문경새재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고개'라 불렸다.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 주요 관문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세워진 세 개의 관문에는 천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다. 옛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돌계단마다 남은 발자국이 역사를 품고, 숲의 향기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레 단단해진다. 문경생태미로 공원에서는 백두대간의 생태를 체험하며 숲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인근 에코월드에서는 옛 석탄 산업의 흔적과 미래형 생태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시간을 만날 수 있다.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32





## 시의 길을 걷는 여행, 마음이 맑아지는 여정

### 영양 외씨버선길

시인 조지훈의 고향길을 따라 조성된 외씨버선길은 총 연장 248km, 15개 구간으로 이루어진 순환형 트레일이다. 청송에서 영양, 봉화, 영월로 이어지는 길은 버선 모양의 지형을 닮았고, 산과 들, 마을과 강이 한 폭의 풍경처럼 이어진다. 그중 일월산 자락의 '대티골 아름다운 숲길'은 7구간 치유의 길(8.3km)과 맞닿아 있어, 울창한 숲과 솔향기 속을 느릿하게 걷기 좋은 구간이다. 걷는 동안 마음은 시처럼 단정해지고, 발걸음은 고요해진다.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대티골 일원



## 천년 고찰이 품은 숲, 마음이 머무는 산

### 청도 운문산

해발 1,195m의 운문산은 물과 바람이 쉬어가는 고요한 산이다. 능선마다 활엽수가 울창하고, 아래로는 맑은 운문호가 호수를 이루며 숲의 숨결을 더한다. 산자락에는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천년 고찰 운문사가 자리한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명상의 도량으로, 산의 정적과 수행의 기운이 어우러진다. 운문사 숲길을 걷다 보면 자연과 마음이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만난다.

☉ 운문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 돌계단 위의 기도, 마음이 닦이는 길 경산 팔공산 갓바위 소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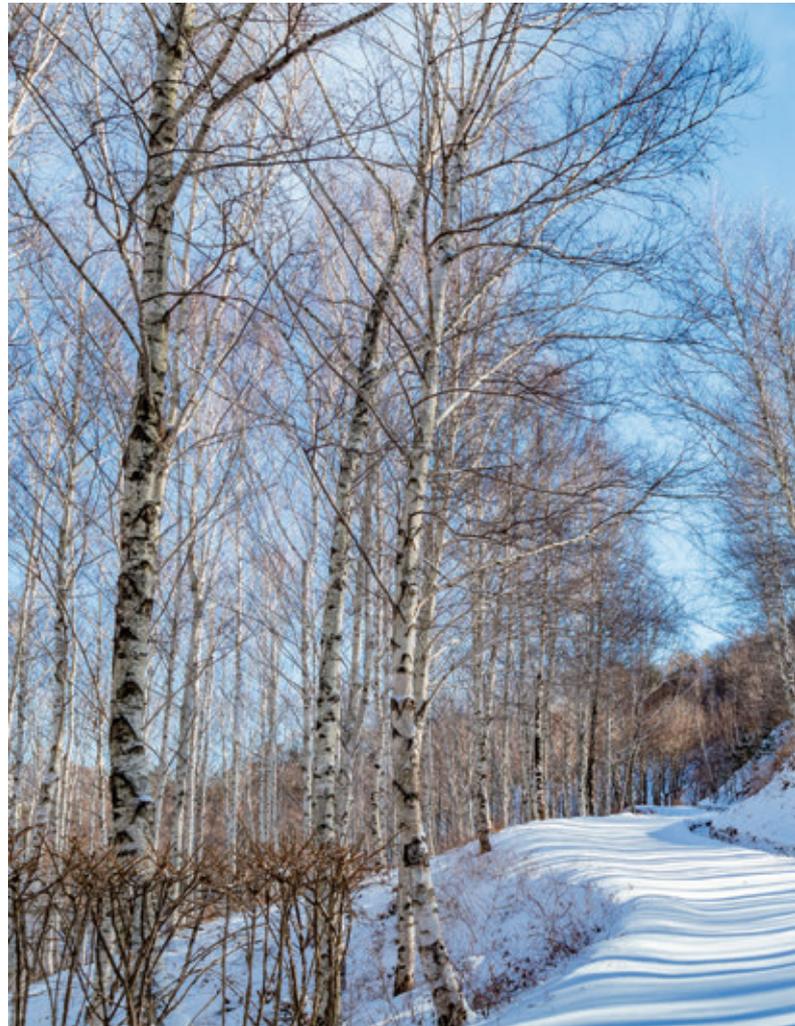
팔공산은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영남의 대표 영산이다. 갓바위 부처가 앉은 정상에서 동화사와 파계사, 은해사로 이어지는 길은 오랜 세월 불교문화의 숨결과 함께 순례의 길로 걸어졌다. 그중 '갓바위 소원길(26.4km)'은 가장 간절한 발걸음이 향하는 길로, 그중 상원사에서 선본사 주차장까지 5.7km 구간은 기존 옛길과 등산로를 활용한 친환경 탐방로다. 오르막의 끝에서 마주하는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 갓바위 부처 앞에 서면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른다.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23

### 몸이 쉬고 마음이 숨 쉬는 산림의 쉼터 김천 국립김천치유의숲

황악산 자락의 해발 400~600m 구간에 조성된 국립김천치유의숲은 운동 강도와 거리별로 '관찰의 숲길', '자아의 숲길', '성장의 숲길', '아름다운 모티길'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잣나무·자작나무·단풍나무·전나무가 어우러진 길을 따라 걸으면, 피톤치드 향이 맑은 숨처럼 퍼진다. 마사토 길에서는 맨발 걷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 1237-89





### 천년의 산, 야생화가 피어내는 치유의 시간 성주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가야산은 경북의 서남쪽 끝, 성주를 품은 웅대한 산이다. 봄이면 능선마다 야생화가 피어나고, 여름에는 계곡의 바람이 숲을 적신다. 그 자락에 2006년 문을 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은 2만㎡ 규모의 생태정원으로, 자생식물 400여 종이 사계절 내내 피고 진다. 식물 해설과 생태 체험이 운영되어, 꽃과 숲을 함께 느끼며 자연의 호흡을 배울 수 있다. 이 일대에는 '가야산 치유의 숲'이 조성 중으로 곧 경북의 새로운 힐링 명소로 완성될 예정이다.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49



문화의

기



## 경북의 문화, 그 길에서 만나다

경북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문화가 피어난다. 신라 천년의 숨결이 머무는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마을과 서원이 오랜 시간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리고 한복·한지·한식 등 장인들의 숨결이 깃든 공간들은 경북 문화의 깊이를 더한다. 유산과 예술, 장인과 일상이 어우러진 이 길 위에서 경북의 문화는 오늘을 지나 내일로 흐른다.



유네스코, 기억의 길

불국사

## BULGUKSA TEMPLE

### 역사가 남긴 기억, 자연이 써 내려간 시간

신라의 불국토에서 유교의 서원,  
가야의 왕릉을 지나 길은 이제  
지구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천년의 문화가 남긴 흔적과 수억 년의  
땅이 기록한 이야기가  
경북의 산과 바다 위에서  
하나의 길로 만난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닌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은 문화·자연·복합유산으로 나뉘며, 등재 시 국제적 보호와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한국은 현재 17건의 세계유산(문화·자연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은 6건을 보유하고 있다.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 문화유산: 경주 불국사&석굴암

### 신라의 미학이 완성된 불국의 빛

8세기 통일신라, 불교 예술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 경주의 남산 자락에 세워진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인이 꿈꾸던 '불국토'의 이상을 구현한 공간이다. 불국사는 청운교·백운교·다보탑·석가탑으로 이어지는 조형미와 상징의 구조로 인간의 손으로 빛은 천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석굴암은 정교한 석조기법과 수학적 비례로 조성된 인공 석굴로, 본존불의 고요한 미소 속에 우주와 인간, 깨달음의 조화를 담았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불교 예술과 과학, 철학이 하나로 어우러진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 📍 불국사 경북 경주시 불국로 385
- 📍 석굴암 경북 경주시 석굴로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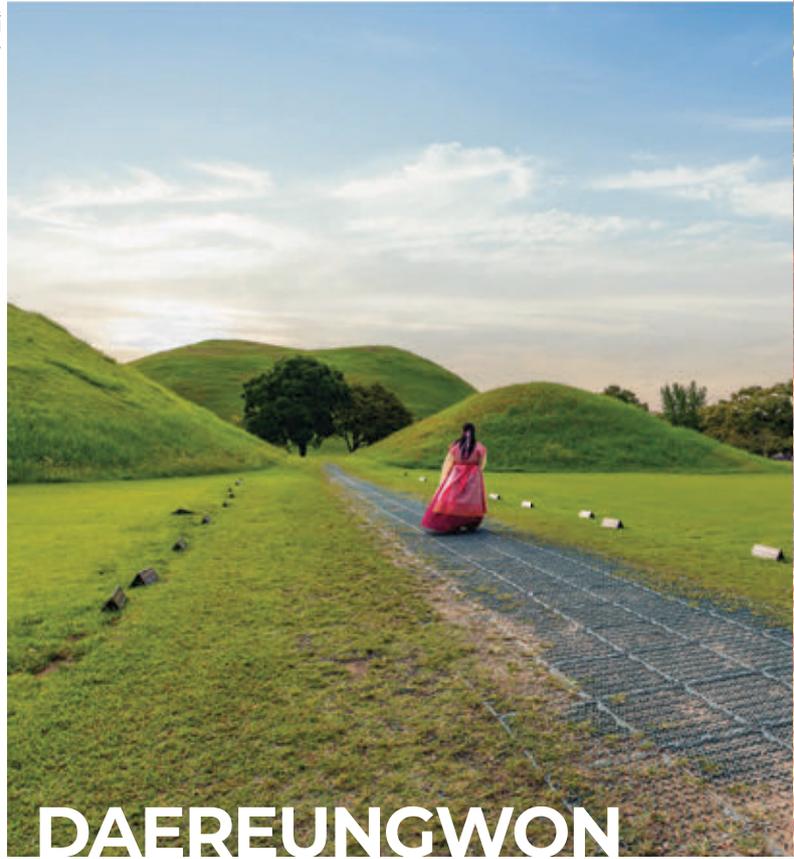


소림암  
**SEOKGURAM GROTTTO**

# 경주 역사유적지구 (5개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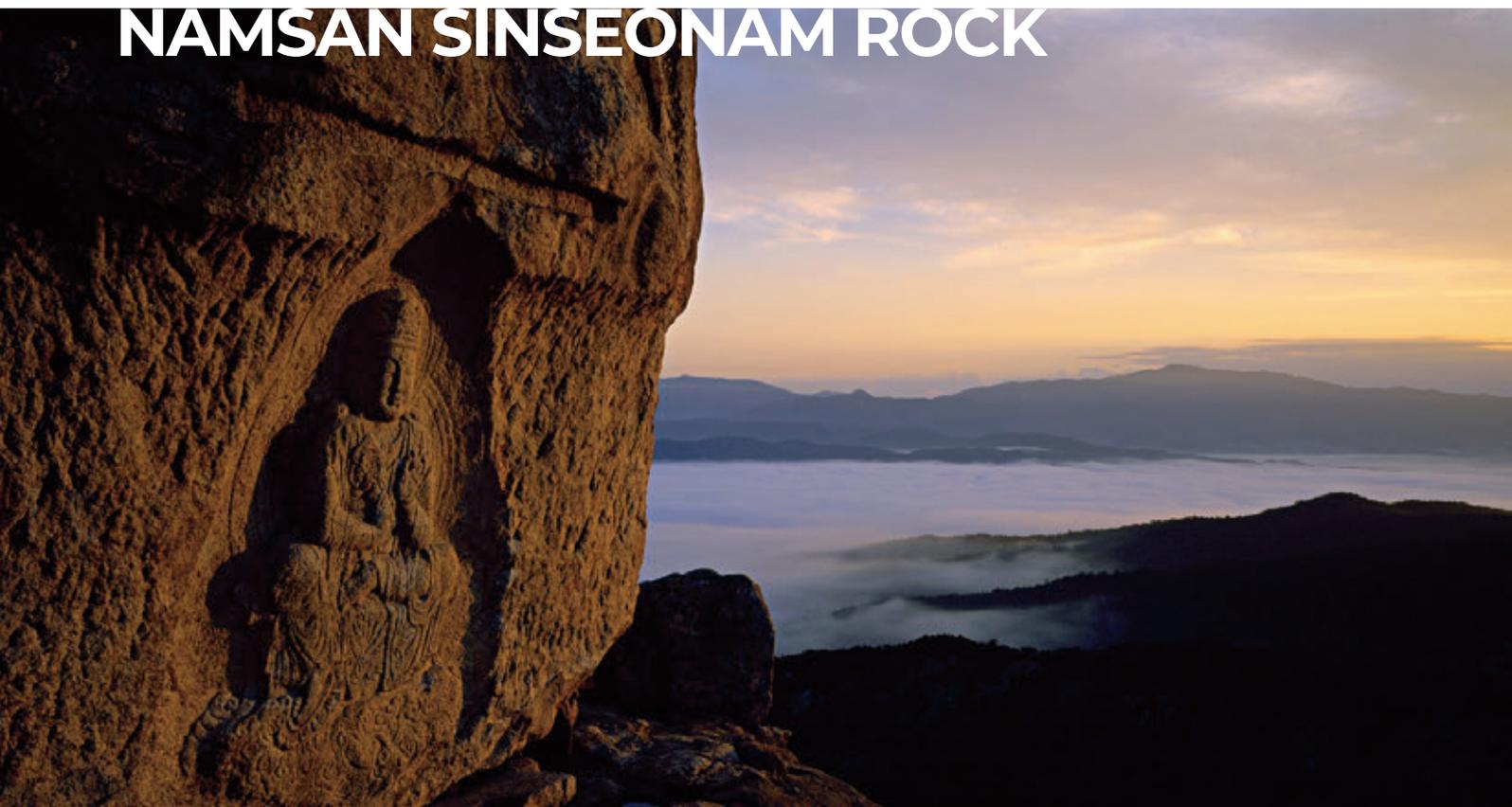
## 천년 도읍의 흔적, 신라의 시간 속으로

기원전 57년 박혁거세로부터 56대 경순왕까지, 992년의 찬란한 역사를 이어온 신라의 수도 경주. 그 천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바로 경주 역사유적지구다.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 유적지구는 월성·대릉원·남산·황룡사·산성 등 다섯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궁궐과 왕릉, 사찰과 산성, 불상과 탑이 한 도시에 공존하며 신라의 예술·종교·생활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유네스코는 이곳을 '고대 신라 문명의 탁월한 증거이자,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중심'이라 평가했다.



남산

# NAMSAN SINSEONAM ROCK





# POSEOKJEONG PAVILION

포석정



첨성대

# CHEOMSEONGDAE

남산지구는 100여 점의 불상과 탑이 흩어진 '야외 박물관'이라 불리고, 월성지구에는 첨성대·계림·임해전지 등 신라 왕경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대릉원지구에서는 금관과 천마도 등 신라 장인의 예술혼이 발굴되었으며, 황룡사지구와 명활산성으로 이어지는 유적은 신라 불교문화와 축성술의 깊이를 보여준다.

📍 경북 경주시 일원



# HAHOE FOLK VILLAGE

하회마을

##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 양동마을

###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한국의 역사마을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은 14~15세기 조성된 한국 대표 씨족마을이다.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의 집성촌으로, 낙동강 물길이 마을을 감싸 흐르고, 양동마을은 여강 이씨와 손씨의 후손들이 함께 살아온 구릉지 마을이다. 두 마을 모두 조선시대 유교적 질서 속에서 가문의 전통과 공동체의 예법을 지켜온 '살아 있는 유산'이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조화를 이루고, 유교의 예절과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 세대를 이어 숨 쉰다. 유네스코는 2010년, 이 두 마을을 '유교적 이상에 따라 형성된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전형이자 그 생활문화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평가하며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 📍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중가길 2-1
- 📍 양동마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25

양동마을



# YANGDONG FOLK VILLAGE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부석사 & 봉정사

## 산사에 깃든 깨달음, 천년의 고요

산과 계곡이 만든 자연 속에서 불교의 본질을 찾은 공간, 그것이 산사다. 영주의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종 사찰로, 무량수전은 고려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경내의 석등과 안양루, 부석사 삼층석탑은 산세와 어우러져 불교 건축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증명한다. 안동의 봉정사는 통일신라 시대 창건된 고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극락전이 남아 있다. 조용한 산세 속에서 수행과 건축, 예불과 생활이 이어지며 천년의 불교 전통을 '살아 있는 유산'으로 전한다. 2018년, 부석사와 봉정사를 포함한 일곱 사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되었다.

📍 부석사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 봉정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봉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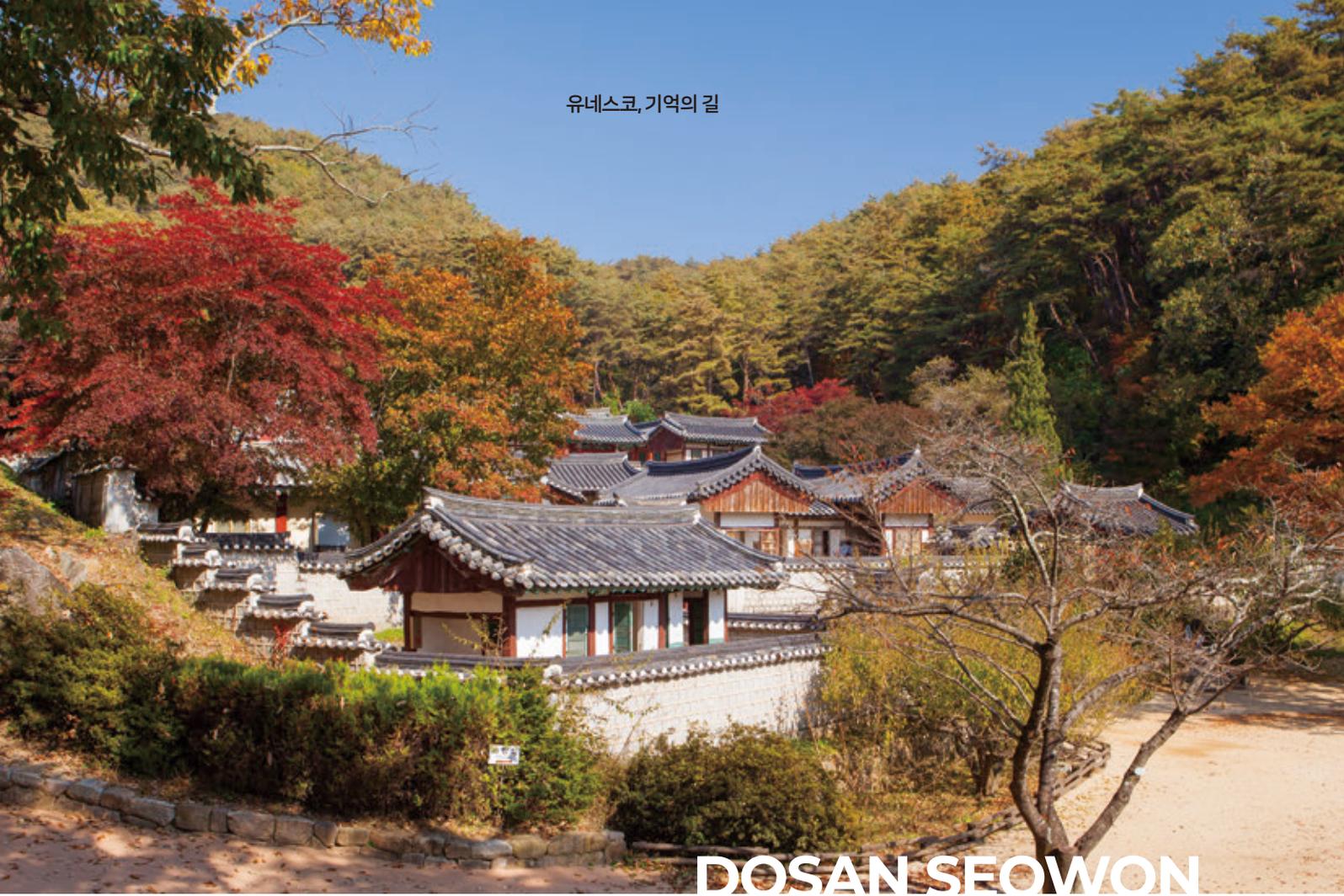
## BONGJEONGSA TEMPLE

부석사



## BUSEOKSA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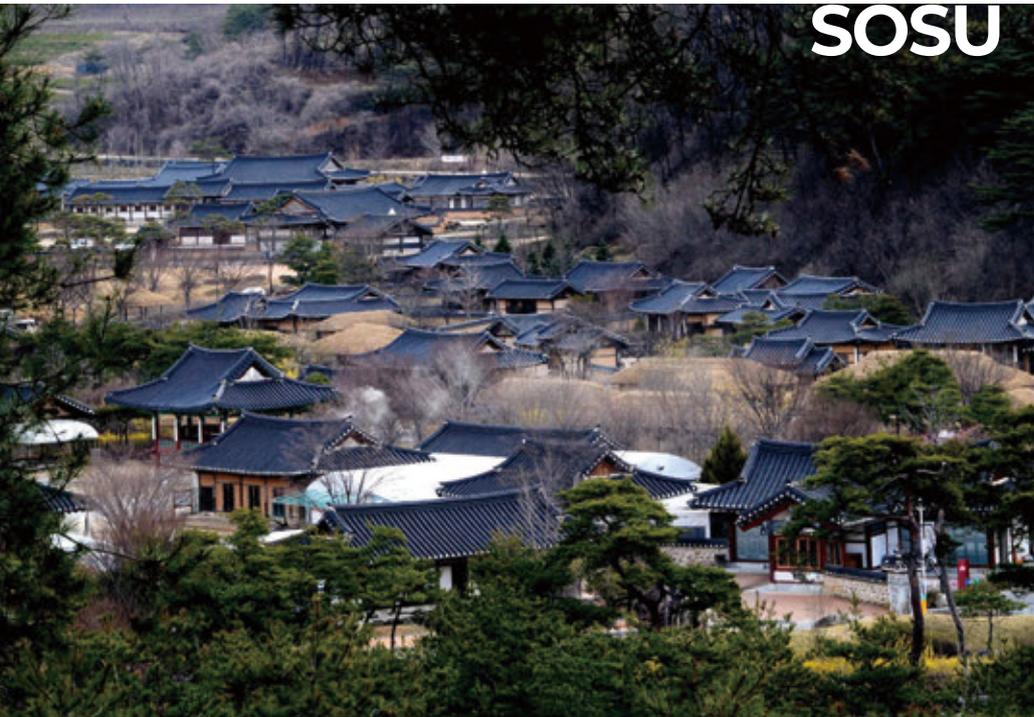
유네스코, 기억의 길



# DOSAN SEOWON

도산서원

소수서원



# SOSU





병산서원

**BYEONGSAN**

## 한국의 서원 (도산, 소수, 병산, 옥산)

### 유교의 정신,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서원

조선의 서원은 성리학의 가치와 세계관, 자연관이 가장 온전히 담긴 공간이다. 16세기 중반부터 향촌의 사림들에 의해 세워진 서원은 학문을 연마하고 선현에게 제사를 올리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가르쳤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유학자 안향을 배향하고, 도산·병산·옥산서원은 각각 이황, 류성룡, 이언적의 학문을 이어가는 배움터다. 제향공간·강학공간·유식공간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교육과 제향, 사색이 한 자리에 어우러진 조선 성리학의 상징이 되었다. 아울러 서원은 대체로 선현과의 연고와 자연 경관을 중시해 산과 물 가까이에 자리 잡았고, 누마루형의 개방적 건물 구성으로 자연과의 소통을 극대화했다.

2019년 유네스코는 소수·남계·옥산·도산·필암·도동·병산·무성·돈암서원 등 9개 서원을 '성리학의 보편적 가치와 교육 체계의 물리적 증거'로 등재했다. 그중 소수서원(영주), 도산서원·병산서원(안동), 옥산서원(경주) 등 네 곳이 경북에 위치하며 지역의 학문 전통과 유교 정신의 중심축을 이룬다.

- ① 도산서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 ②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 ③ 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 ④ 옥산서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옥산서원

**OKSAN**





고령 지산동 고분군



GORYEONG JISAN-DONG TUMULI

#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 가야의 왕국, 땅속에 잠든 문명의 흔적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5~6세기 후기 가야연맹의 중심이었던 대가야 지배층의 무덤군이다. 경북을 대표하는 가야의 유산으로, 대가야의 정치적 중심지이자 연맹체 질서를 보여주는 핵심 유적이다.

산자락을 따라 조성된 700여 기의 봉토분은 가야 고분 중 최대 규모로, 지배층의 위계와 장례문화를 잘 보여준다. 대형분에는 최고 지배자와 함께 10~40여 명의 순장자가 묻혀 있어 권력 구조와 사회 체계를 드러낸다. 출토된 토기·철기·금관·무기류는 대가야의 기술과 교류를 입증한다. 백제와 신라, 일본 유물과 유사한 청동그릇·고리자루큰칼 등은 가야의 활발한 대외 교류를 보여준다.

2023년 고령·김해·남원 등 7개 지역의 고분군이 연속 유산으로 등재되며, 유네스코는 이를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과 자율적 연맹체의 증거'로 평가했다. 7개 고분군은 각 지역의 지형과 묘제, 부장품이 다르지만, 공통된 위세품과 교역품을 통해 수평적 연맹체로서의 가야 문화를 증명한다. 봉토 아래에 잠든 고분들은 오늘날까지 가야의 자율성과 교류 정신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학적, 지형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중 교육·보전·지속가능한 관광을 함께 실현하는 곳을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은 현재 7곳의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은 2곳을 보유하고 있다.



## 경북 동해안지질공원

### 바다와 땅이 기록한 지구의 역사

경주·포항·영덕·울진에 걸친 2,693.69km<sup>2</sup> 규모의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은 동해의 형성과 한반도 지각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 한반도 최대의 신생대 화석산지, 동아시아 지체구조(tectonic framework)와 화성활동(magmatism)의 흔적이 남은 지질 명소가 곳곳에 분포한다. 대표 지질 명소로는 경주의 남산 화강암·골굴암·문무대왕릉·양남주상절리, 포항의 호미곶 해식절벽, 영덕의 블루로드 해안 노두, 울진의 단층대와 해안절벽 등이 있다. 지질학적 가치뿐 아니라 생태·역사·문화와의 연계성, 지역사회 협력,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2025년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등재되었다.

📍 경북 경주·포항·영덕·울진 일원

문무대왕릉

# TOMB OF KING MUNMU





# JUWANGSAN

주왕산

## 청송 세계지질공원

화산과 강이 빛은 지질의 예술,  
지구의 시간을 품은 고을

주왕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845km<sup>2</sup>의 청송 세계지질공원은 화산 활동과 지각 변동이 만들어 낸 지질유산의 보고다. 수억 년 전의 화산재가 굳어 형성된 응회암 절벽, 규칙적인 무늬를 그린 주상절리, 철질 탄산수가 솟는 달기약수,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청송 얼음골까지. 자연이 남긴 흔적은 마치 지구가 쓴 오래된 일기처럼 시간을 기록한다. 이곳의 지질유산은 단순한 암석이 아니라 지구의 역사와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자연의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2017년 유네스코는 이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하며 '화산·침식·단층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지질 연구의 중심지'로 인정했다.

📍 경북 청송군 일원

백서곶계곡



청송얼음골



장인, 혼의 길

## 장인의 길을 따라 걷는 하루, 손끝으로 만나는 전통

경북의 산과 강, 마을마다 장인의 숨결이 깃들여 있다.  
닥나무를 삶고 뜨는 종이, 나무의 결을 따라 새겨진 무늬, 바늘 끝에 담긴 곡선의 미까지  
전통은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오늘도 그들은 오래된 기술에 새 숨을 불어넣으며,  
사라지지 않는 혼의 온도를 이어간다.





상주 한국한복진흥원

# 韓服

전통의 결을 잇고, 한복의 미래를 짓다

## 상주 한국한복진흥원

한국한복진흥원은 한복의 계승·보존과 산업화·세계화를 이끄는 국가 거점 기관이다. 2021년 개원 이후 한복의 교육·연구·창업·전시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한복전수학교, 융복합산업관, 한복전시홍보관 등에서 전문 인력 양성부터 디자인 개발, 창업 지원까지 한복 산업 전반이 이루어진다.

전시홍보관에서는 궁중복식의 변천사와 현대 디자이너의 창작 한복이 함께 전시되며, 체험관과 어린이 한복놀이터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한복을 입고 즐길 수 있다. '한복문화가 있는 날', '한복주간' 같은 행사는 한복을 생활 속 문화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융복합산업관 내 한복 문화창작소에서는 전통 봉제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한복 상품을 개발한다. 이곳에 입주한 브랜드들은 천연 염색, 명주직물 등 지역 섬유산업과 협업하며 한복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 경북 상주시 함창읍 무운로 1591

🌐 <http://www.hankukhanbok.or.kr>

# 韓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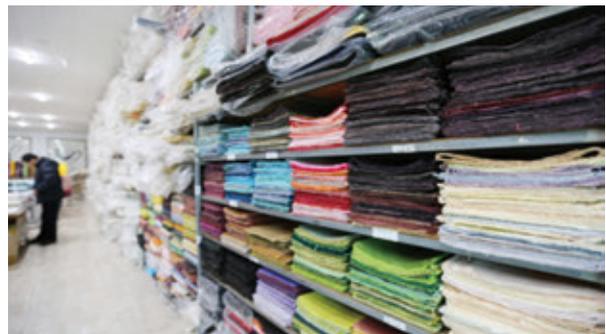
## 천년의 종이, 세계가 반한 한지의 고향 안동 한지상설전시관

한지상설전시관은 닥나무와 맑은 물, 그리고 장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전통 한지의 세계를 보여주는 곳이다. 한지의 생산과 공예,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곳은 우리 종이문화의 맥을 잇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전통 한지의 우수성에 감탄해 안동한지를 직접 선물용으로 구입해 간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빛과 공기는 통과시키되 바람은 막아주는 한지의 특성, 그리고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질감은 여왕을 비롯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시관에는 70여 종의 한지와 다양한 공예품, 서예·지승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한지뜨기, 탈 만들기, 오색문양 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통 제조법을 지켜온 장인들의 기술과 감각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나바우길 13

🌐 <https://andonghanji.com>



안동 한지상설전시관



영양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조선의 어머니, 음식과 삶을 가르치다

## 영양 장계향문화체험 교육원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에 자리한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은 조선 여중군자 장계향(1598~1680)의 삶과 정신을 오늘에 잇는 공간이다.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조리서 음식디미방을 집필한 그는 학자이자 교육자, 시인, 그리고 현모양처로 기억된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조리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와 자연의 섭리를 담은 철학이었다. 2015년 세계물포럼에서는 전통주 '칠일주'와 '감향주' 등 10여 가지 음식이 대통령 주재 공식 오찬 메뉴로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교육원은 이 정신을 이어받아 음식·예절·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 체험관으로 운영된다. 350년 전 조선 중기의 상차림을 재현한 음식디미방 시식체험과 전통주 만들기, 다도·서예·예절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한옥 숙박이 가능한 체험동에서는 두들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음식과 삶, 그리고 배움이 하나로 이어진다.

📍 경북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1길 42

🌐 <https://www.yyg.go.kr/jghcenter>



## 나무의 결을 따라 이어지는 장인의 인생 의성 목재문화체험장

의성 목재문화체험장은 나무의 향기와 손끝의 온기를 그대로 전하는 공간이다. 폐교(춘산중학교)를 리모델링해 2022년 문을 연 이곳은 목공예 명장 김복연 장인이 50년 경력의 손끝으로 이끌고 있다. 그는 “나무는 마음이 선한 재료”라 말하며,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에서 세상의 근심을 잊는다고 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목공을 넘어선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는 도마·책꽂이·미니가구 제작 체험, 나무로 만드는 벽시계·조명 소품,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이 운영된다. 체험장은 연간 4천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가족 단위 여행객과 지역 학생들의 목공 수업, 힐링 워크숍 장소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CNC·3D 커팅기 등 현대적 장비를 활용한 수업은 전통 수공예의 정성과 현대 기술의 효율을 조화롭게 잇는다. 체험장 한쪽에는 그가 만든 가구와 생활 소품이 전시되어 있고, 직접 만든 교보재 키트는 전국의 체험센터와 학교로도 보급되고 있다.

📍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성현서로 1505

🌐 [https://www.usc.go.kr/geopark/page.do?mnu\\_uid=1759](https://www.usc.go.kr/geopark/page.do?mnu_uid=1759)



의성 목재문화체험장

# 木材



# 伽倻琴

## 가야금의 고향, 선율로 이어지는 장인의 혼 고령 우륵박물관

우륵박물관은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樂聖) 우륵의 삶과 예술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륵과 가야금' 테마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우륵과 관련된 유물과 복원 악기, 전통음악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가야금의 구조와 제작과정, 악곡의 변천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가실왕의 뜻을 받들어 12현의 가야금을 만든 우륵은 이 악기로 연주한 12곡을 세상에 남겼다. 그의 음악은 대가야의 감성과 정신을 하나로 모았고, 신라에 전해져 국악의 뿌리가 되었다.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는 '신라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전해져, 지금도 일본 정창원에 당시 가야금이 보존되어 있다. 이로써 우륵은 고구려의 왕산악, 조선의 박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린다. 우륵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관을 넘어 세대가 함께 전통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된다. 아이들에게는 가야금의 소리와 이야기가 살아 있는 교실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잊혀가는 국악의 향기를 되찾는 시간 여행이 된다.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98

🌐 [https://www.goryeong.go.kr/daegaya/sub02/sub01\\_02.do](https://www.goryeong.go.kr/daegaya/sub02/sub01_02.do)



고령 우륵박물관





삶의  
길

길 위에 삶이 있고,  
경복이 있다

사람이 길이 되고, 그 길이 다시 삶이 된다.  
들녘의 바람과 시장의 소리, 손끝의 온기 속에  
경복의 하루는 여전히 따뜻하다.  
그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이 땅의 시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 도심 속 경북, 길 위의 감성

경북의 도시에서는 길이 이야기가 된다.

왕릉 옆을 따라 걷는 골목에도, 산업도시의 오래된 시장에도,  
청년들이 모여드는 카페 거리에도 시간의 곁이 스며 있다.

이 길 위에서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댄다.





경주 황리단길 경주 금리단길

## 천년의 도시, 골목에서 피어나는 감성 경주 황리단길& 금리단길



황리단길은 신라 천년의 심장부, 대릉원과 첨성대 인근에 자리한 골목이다. 한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낡은 한옥만 남았던 곳이지만, 2015년 말부터 젊은 상인들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카페·식당·공방을 열어 새로운 감성이 스며들었다. 서울의 경리단길을 본떠 붙인 이름은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이제는 경주의 대표적인 골목으로 자리 잡았다. 돌담과 고분을 배경으로 카페와 공방이 늘어난 풍경, '황리단길표 썬드기'를 손에 들고 걷는 즐거움이 여행의 묘미다.

인근의 금리단길은 여전히 생활의 온기를 품은 골목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대신 소규모 공방, 전통주점, 로컬 상점이 모여 있고 신라 황룡사와 분황사로 이어지던 옛길의 흔적이 남아 있다. 황리단길이 세련된 감성을 담았다면, 금리단길은 일상의 향기를 품었다. 두 골목을 걷다 보면, 천년 도읍의 유산 위에 오늘의 일상이 겹쳐지는 특별한 순간을 만난다.

- 📍 황리단길 경북 경주시 포석로 180
- 📍 금리단길 경북 경주시 원효로 127



경주 황리단길



경주 금리단길



구미 금리단길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 산업도시의 골목, 새로운 문화의 길로 구미 금리단길 & 새마을중앙시장



구미역에서 멀지 않은 원평동 일대에는 오래된 주택가 사이로 새로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곳은 한때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오가던 생활 골목이었지만, 빈 점포를 활용한 카페와 공방, 소품숍이 들어서며 '금리단길'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름은 '금오산(金烏山)'의 '금(金)'에서 따온 것으로, 산업도시의 이미지 속에서도 감성과 예술의 숨결을 입히고자 한 청년 상인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오래된 철제 간판 아래로 네온사인과의 카페 간판이 나란히 걸리고, 주말이면 골목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 청년 창업의 중심지이자 구미의 새로운 문화 거리로 자리 잡았다.

금리단길과 맞닿은 새마을중앙시장은 여전히 구미의 일상을 품고 있다. 시장 안에는 오랜 역사와 맛을 자랑하는 칼국수골목, 족발골목, 순대골목, 한복골목 등 전통시장 특유의 활기가 남아 있다. 인근 도시재생사업으로 보행환경과 조명이 개선되면서, 낮과 밤 모두 사람들이 찾는 구미의 생활 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 ① 금리단길 경북 구미시 원남로8길 13
- ② 새마을중앙시장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9길 11





청년의 도시, 커피 향으로 물드는 거리

# 경산 삼성현역사문화공원 & 카페거리



경산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경산은 지금 '커피 도시'로 불린다. 도심 곳곳에 480여 개의 카페가 자리 잡아, 시민들에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휴식을 선물하고 있다. 과수원 속에 자리한 브런치 카페부터, 고즈넉한 호숫가와 산책길에 자리한 감성 카페, 그리고 도심 속 북카페와 공방형 카페까지 저마다의 개성과 향기로 도시의 풍경을 채운다.

그 중심에는 경산의 정신을 품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있다. 신라의 원효·설총, 고려의 일연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이곳은 전시관·체험관·분수광장·유아숲체험원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원이다. 잔디밭과 소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공원 밖으로 이어지는 카페 거리와 자연스레 연결된다. 역사와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경산 카페거리

매년 여름이면 도시 전체가 커피 향으로 물든다. 20여 개 카페가 참여하는 '경산카페축제'(6. 20.~7. 4.)는 도심형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투어 With 신비복숭아'를 주제로 카페마다 바리스타 대회, 복숭아 BBQ, 어린이 미술대회, 플라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산의 대표 과일 신비복숭아와 로컬 커피가 만나 한여름의 달콤한 향기를 만들어내고, 삼성현의 고유한 사색과 어우러져 감성의 도시 경산을 완성한다.

- ☑ 카페거리 경북 경산시 전역(하양·남부·압량·중방동 등)
- ☑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경북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공원로 59

경산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경산 카페거리



세계의 맛과 멋  
기린과 구만



경북이  
축제로 물들다

경북의 들녘과 하천, 골목과 산마음이 일제히 들썩인다. 김밥 한 줄에도 정성이, 은어 한 마리에도 여름의 향이 담긴다. 가을이면 사과 향이 달콤하게 퍼지고, 인삼 향이 바람을 타고 흐른다. 전통과 자연, 사람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경북의 축제는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피어나며 지역의 숨결을 전한다. 올해, 경북의 열 가지 대표 축제에서 그 다채로운 풍경을 만나보자.



김천 김밥축제



## 한 줄의 정성, 도시가 김밥으로 물들다 김천 김밥축제

- 기간 2025. 10. 25.(토)~10. 26.(일)
- 장소 김천 직지문화공원 및 사명대사공원 일원

‘김밥천국’이라는 유쾌한 오해에서 출발한 이 축제는 이제 김천의 도시 브랜드를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축제는 ‘명품·이색·이벤트’ 3개 존으로 운영되었으며 김밥창작소, 로컬김밥 체험, 김밥쿠키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다.

행사장은 기존 사명대사공원에서 직지문화공원으로 확장돼, 무지링존·오잉존·햄찌존 등 테마 공간을 새롭게 선보였다. 김밥 판매 부스는 8곳에서 30여 곳으로 늘어나 50여 종의 김밥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올해는 키오스크 결제, 실시간 수량 전광판, 셔틀버스 4배 증차 등 운영 개선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 구미의 라면 한 그릇, 세상과 통하다 구미 라면축제

- 기간 2025. 11. 7.(금)~11. 9.(일)
- 장소 구미역 광장 일원

‘라면의 도시’ 구미는 산업유산을 문화로 재탄생시켰다. 국내 최대 라면공장이 있는 구미는 지역 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고자 2023년 ‘라면축제’를 시작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2025 구미라면축제’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구미역 일원에서 열려 35만 명이 다녀갔다. 475m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도심이 라면 거리로 변신했으며, 즉석조리된 ‘갓 튀긴 라면’ 25종이 5만여 그릇 판매돼 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QR 주문 도입으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가족·청년층이 함께 즐기는 ‘후루룩 라운지’와 ‘갓랜드’ 등 체험 공간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이 품은 평화의 노래  
칠곡 낙동강평화축제

- 기 간 2025. 10. 16(목)~10. 19(일)
- 장 소 칠곡보생태공원·칠곡보오토캠핑장·왜관시가지 일원

6·25 낙동강 방어선의 역사를 '기억과 축제'로 잇는 칠곡 낙동강평화축제는 전쟁의 땅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려는 지역의 의지에서 태어났다. 2025년 축제는 '평화, 칠곡이 아니었다면'을 주제로, AI 스마트팔찌로 입장·예약을 통합하고, 평화음악제·드론라이트쇼·불꽃공연으로 야간 콘텐츠를 강화했다.

낙동강 전선을 지킨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헌정영상과 전승행사가 감동을 더했고, 낮에는 가족 단위로 즐기는 '평화버스·DMZ VR체험·평화푸드존'이 운영됐다. 나흘간 40만 명이 방문하며 대구·경북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강변 무대에서는 박서진·임창정·미스터트롯 TOP7, 자우림 등 초청공연이 이어졌다. 전쟁의 기억이 음악과 문화로 승화되는 그 순간, 칠곡의 가을 하늘 아래 평화의 바람이 불었다.

칠곡 낙동강평화축제



경산 자인단오제



천년의 제의와 흥, 자인에 피어나다  
경산 자인단오제

- 기 간 2025. 5. 30(금)~6. 1(일)
- 장 소 경산 자인면 계정숲 및 남천둔치 야외공연장

2025년 APEC 정상회의 문화행사 무대에 초청되어 한국 전통의미를 세계에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은 경산 자인단오제. 신라시대 한창군을 기리는 제사에서 비롯된 자인단오제는 천년을 이어온 전통 제의이자 국가무형유산 제44호로 지정돼 있다. '한묘대제'와 '호장행렬', '여원무', '자인팔광대' 등 다섯 마당이 핵심으로, 제례와 놀이, 무용이 한데 어우러졌다.

2025년 축제는 '천년의 흥, 자인에 피다'를 주제로 5월 30일 전야제에서 윤수현 공연과 불꽃쇼로 시작해 6월 1일까지 사흘간 이어졌다. 올해는 어린이 사생대회·민속놀이 체험·무형유산 교류공연(송파산대놀이·어방놀이 등)을 더해 세대가 함께 즐기는 열린 축제로 확장됐다.

## 사과처럼 붉게, 청송의 가을이 익다 청송 사과축제

• 기 간 2025. 10. 29.(수)~11. 2.(일)

• 장 소 청송 용전천 현비암 일원

‘다시 푸르게, 다시 붉게’를 주제로 열린 제19회 청송 사과축제는 산불 피해를 이겨낸 회복의 뜻을 담아 청송의 가을을 물들였다. 5일간 50만 명의 방문객과 온라인 참여자 320만 명이 함께하며 청송사과의 명성을 다시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사과 따기, 황금사과 찾기, 사과선별로도 등 가족형 체험이 인기를 끌었고, 100여 개 농가가 참여한 직거래장터는 긴 줄이 이어졌다. 유튜브·SNS로 진행된 온라인 축제도 큰 호응을 얻으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13년 연속 대상’의 위상을 입증했다.

청송사과 꽃줄여기 대회, 읍·면 퍼레이드, 줄다리기 등 군민이 주인공이 된 무대가 이어졌고, 용전천 일대에는 그늘막과 휴게공간이 마련돼 편의를 더했다. 사과 향기처럼 달콤한 웃음이 번지며, 청송의 가을은 다시 붉게 익어갔다.



청송 사과축제



## 내성천의 은빛 물결, 자연과 체험이 어우러지다 봉화 은어축제

• 기 간 2025. 7. 26.(토)~8. 3.(일)

• 장 소 봉화 내성천 일원

청정 1급수 내성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열린 봉화 은어축제는 자연이 주인공인 여름 생태축제다. 은어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 반두잡이, 숯불구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워터파크와 모래놀이장도 운영됐다. Ref와 채연이 출연한 ‘레전드 물벼락쇼’, DJ 박명수의 ‘워터비트 나이트’, ‘은어 트롯트레인’ 등 무대 공연이 축제의 흥을 더했다.

아이들을 위한 ‘캐치! 티니핑 싱어롱쇼’도 열려 어린이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었다. 내성천 위로 수많은 물총이 터지고, 웃음과 함성이 어우러진 현장은 여름의 한가운대를 시원하게 물들였다.



봉화 은어축제

## 인삼 향 따라 건강한 가을을 걷다 영주 풍기인삼축제

- 기 간 2025. 10. 18.(토)~10. 26.(일)
- 장 소 영주 풍기읍 남원천 일원

조선시대 주세붕 군수가 처음 인삼 재배를 시도한 풍기. 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풍기인삼축제는 1998년부터 '천년 건강의 고장'을 표방하며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인삼 깎기·인삼요리·황금인삼 찾기 등 체험행사와 함께 건강체험관, 인삼경매, 전통의례 퍼포먼스가 열렸다. 인삼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장터도 성황을 이뤘으며, 건강과 전통을 잇는 대표 웰니스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영주 풍기인삼축제

## 들녘의 흙내와 과일의 향기, 생명의 숨결이 만나다 성주 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성주 참외&생명문화축제

- 기 간 2025. 10. 18.(토)~10. 19.(일)/  
5. 15.(목)~5. 18.(일)
- 장 소 성주 수륜면 수성리 일원/성주 참외테마공원 일원

가야산 자락의 눈과 밭에서 탄생한 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 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농촌형 생태축제'에서 출발했다. 아이들이 흙 속을 뒤돌며 메뚜기를 잡고, 고구마를 캐고, 메기를 잡는 체험은 자연을 교실 삼아 배우는 생생한 놀이가 된다.

봄이 오면 들녘은 다시 노란 참외 향기와 함께 생명의 이야기를 품는다. '성주 참외&생명문화축제'는 참외축제와 생명문화축제가 통합된 행사로, 농업과 문화, 생명을 잇는 축제로 새롭게 거듭났다. 참외 수확·참외 디저트 만들기·참외 요리경연 등 먹거리 체험과 함께, 생명사랑 걷기대회·친환경 전시·힐링콘서트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올해는 MZ세대를 겨냥한 참외 디저트존과 포토존, 팝업 카페가 마련되어 젊은 감각을 더했고, 가족 단위 관람객이 몰리며 축제장은 활기로 가득했다.



성주 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성주 참외&생명문화축제

## 신선한 가을의 맛, 바다가 차린 한 상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

- 기 간 2025. 11. 7.(금)~11. 9.(일)
- 장 소 울진 죽변면 죽변항 일원

‘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을 주제로 열린 ‘2025 죽변항 수산물축제’는 11월 7일부터 3일간 6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뤘다. 싱싱한 방어·오징어·전어 등 제철 수산물을 즉석에서 거래하는 경매와 맨손 활어잡기, 물회 퍼포먼스 등 체험 프로그램이 가족과 젊은 층의 호응을 얻었다. 울진군 10개 읍·면이 참여한 ‘미니올림픽’은 지역민의 단합을 이끌었고, 밤에는 어선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이찬원·황윤성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열기를 더했다.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과 관광택시 지원 등 교통 편의도 강화됐다. 먹거리 중심을 넘어 지역의 바다 문화를 공유한 이번 축제는 울진을 대표하는 체류형 해양미식축제로 자리매김했다.

## 세 강이 만난 주막에서 시간의 이야기를 예천 삼강주막나루터축제

- 기 간 2025. 10. 4.(토)~10. 6.(월)
- 장 소 예천 삼강문화단지 일원

삼강주막나루터축제는 낙동강·금천·내성천이 만나는 물길의 고장, 예천 삼강에서 옛 나루터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시작됐다. 2010년 ‘삼강주막 막걸리축제’로 출발해 2018년부터 ‘나루터’로 주제를 확장하며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고, 2019년부터는 추석 연휴에 맞춰 열리며 명절 축제로 정착했다. 올해 축제는 ‘삼강에서 흥겹게, 주막에서 정겹게’를 슬로건으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삼강문화단지 일원에서 열렸는데, 방문객 중 70% 이상이 외지인으로 조사돼 전국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조선시대 주모의 일상을 재현한 퍼레이드, 전통주 시음회, 강변국악공연 등이 열리며 전통과 낭만이 어우러졌다.





## 길 위의 한 끼



# 경북을 맛보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빛은 경북의 맛을 만나다

# 경상북도는 바다·강·산·농토가 어우러진 ‘맛의 광장’이다

포항의 깊고 시원한 물회부터 경주의 황남빵, 울릉도의 홍합밥까지, 수많은 음식이 제철을 타고 지역의 역사와 풍경을 담아낸다. 이곳에서는 한 끼가 곧 여행이 되고, 음식 한 입이 곧 기억이 된다. 지역 골목과 시장, 농가어판장 곳곳을 지나며 경북의 맛과 이야기를 만난다.

Experience the Flavors of Gyeongbuk



## 포항 바다의 사계, 포항의 물회와 구룡포 과메기

포항의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미식을 낳았다. 여름엔 얼음 육수에 생선회와 채소, 배를 넣어 먹는 물회가 시원함을 선사하고, 겨울엔 구룡포의 찬 해풍에 말린 과메기가 제철 별미가 된다. 물회는 어부들의 즉석 식사에서, 과메기는 염장 법 '관목(貫目)'에서 유래했다.

구룡포항 일대의 '과메기마을'은 겨울이면 바닷바람에 말린 과메기가 골목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장관을 이룬다. 해풍이 스며든 과메기와 얼큰한 물회 한 그릇이 포항이 품은 계절의 맛을 완성한다.

## 경주

## 세계를 사로잡은 향토 디저트, 경주 황남빵

경주의 향토빵 '황남빵'은 1939년 황남동에서 처음 만들어 졌다. 얇은 밀가루 반죽 속에 팥소를 가득 채워 빛은 모양이 마치 신라 기와처럼 단정하다. 황남빵은 손으로 하나하나 성형해 구워내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8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이어져 왔다. 경주 시내 황남동 태종로 본점 주변은 '황남빵 거리'로 불리며, 수제빵집과 카페가 어우러진 명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 공식 협찬 제품으로 선정돼, 세계 정상단이 맛보는 한국 전통 디저트로 이름을 올렸다.





**안동**

내륙에서 태어난 바다의 맛,  
안동 간고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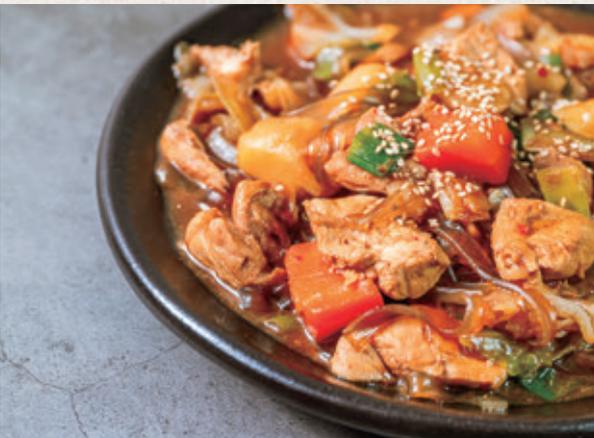
경북 안동 지역이 내륙이었기에 신선한 생선을 바로 먹기 어려웠고, 동해안 영덕·후포 등에서 잡은 고등어를 안동까지 운반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고등어에 소금을 듬뿍 치고 염장한 방식이 개발됐고, 이로써 '안동 간고등어'가 탄생했다. 염장된 고등어는 육질이 단단해지고 맛이 고소해져 내륙에서도 생선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안동 구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한 안동 시내 곳곳에는 간고등어 직판장과 식당이 자리해, 내륙 도시 안동의 정겨운 향토미를 전한다.

**안동**

시장의 지혜가 만든 별미,  
안동 찜닭

안동 구시장 통닭골목에서 닭고기에 채소와 당면, 간장 양념을 넣어 한 솥에 졸여낸 '안동찜닭'은 시장 상인들의 지혜와 손맛에서 탄생했다. 진간장과 물엿, 고춧가루가 어우러져 매콤달콤한 감칠맛을 내며, 넉넉한 양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다. 구시장 안동찜닭골목에는 30여 개의 전문점이 줄지어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미식거리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밀키트와 택배 간편식으로 개발돼 전국 어디서나 집에서도 현지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안동찜닭은 전통시장의 서민 음식에서 시작해 이제는 K-푸드 성장한 안동의 자부심이자 시장 재생의 상징이 되었다.



**의성**

마늘 향이 밴 한우,  
의성 마늘소

경북 의성은 '마늘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에서 키운 마늘을 사료로 준 한우가 '의성 마늘소'다. 토종 한우 송아지를 엄선하고 마늘첨가사료로 사육해 풍미가 깊고 육즙이 풍부한 특성을 갖춘 브랜드이다. 의성군 봉양면 의성 IC 인근에 위치한 '마늘소 먹거리타운'은 의성마늘을 먹고 자란 최고 등급의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 이 지역 사람들보다 도시민들의 발길이 더 잦은 곳이다.



**청도** 달콤한 감의 변신,  
청도 반시 & 와인

청도는 단감의 고향으로, 반시(반쯤 익은 감)의 달콤함을 와인으로 승화시켰다. 지하 터널을 개조한 '청도 와인터널'에서는 감 와인이 발효·숙성되며 독특한 풍미를 낸다. 감 와인 시음과 감잎차 체험, 감 디저트 카페가 함께 운영되어 미식과 관광이 결합된 청도의 대표 명소가 되었다. 단감의 향기와 와인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 청도의 가을을 가장 낭만적으로 완성한다.



**영천** 뽕양고 진한 국물의 도시,  
영천 곰탕

영천의 곰탕은 장날 손님을 위한 따뜻한 한 그릇에서 시작됐다. 사골과 양지, 잡뼈를 오랜 시간 끓여낸 국물에 소면과 파, 다진 마늘을 더해 구수한 풍미를 낸다. 완산동 영천공설시장 안 '곰탕골목'에는 수십 년 된 노포들이 모여 있어 현지인 단골이 끊이지 않는다. 정직한 국물 맛이 세월을 잇는 영천의 대표 미식이다.



**구미** 김치 국물 속의 진한 풍미,  
구미 선산곱창

'선산곱창'은 묵은 김치와 곱창, 양, 천엽을 넣고 칼칼하게 끓여내는 전골 요리다. 이 음식의 시작은 1967년 선산을 동부리, 축협 앞에서 '곱창할매'로 불리던 한 노점상에서 비롯됐다. 추운 날씨 속 허기를 달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곱창을 김치와 함께 전골처럼 끓여 팔았던 것이 선산곱창의 첫 모습이었다. 곱창의 고소한 맛과 김치의 산미가 어우러진 깊은 국물 맛 덕분에 곧 선산 장터의 명물이 되었고, 이후 교리리 일대에 곱창전골집들이 모여 '선산곱창거리'가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전현무·이영자 등이 방송에서 소개하며 전골 곱창의 성지로 전국 미식가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삼주**

**세계가 인정한 달콤한 유산,  
상주 곶감**

상주는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곶감의 고장이다.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비옥한 토지가 어우러져 깊은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곶감 추출물이 기억력 회복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겨울 간식을 넘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곶감의 본고장 외남면은 2005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곶감특구로, 마을 입구부터 17km에 이르는 감나무길과 ‘하늘 아래 첫 감나무’로 불리는 750년 된 노목 등 관광 명소로 잡았다.



**문경**

**붉은 열매의 도시,  
문경 오미자**

문경은 우리나라 오미자의 본고장으로 불린다. 일교차가 큰 산간 기후와 맑은 물, 유기질 토양이 오미자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이룬다.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을 가진 열매’라는 이름처럼 신맛·단맛·쓴맛·매운맛·짠맛이 어우러진다. 문경에서는 이 열매로 만든 오미자차, 오미자청, 오미자막걸리 등이 전국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매년 가을 열리는 문경오미자축제에서는 수확 체험과 오미자 음료 시음, 지역 농가 직거래장이 함께 운영돼 오미자 향이 도시 전체에 번진다.



**김천**

**햇살이 빛은 향,  
김천 포도 와인**

김천은 포도 재배의 역사가 깊은 도시로, 낙동강 유역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이 달콤한 포도를 키운다. 이곳에서 수확한 캠벨·산머루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과실 향이 진하고 부드러운 산미로 유명하다. 지역 농가와 청년 양조인들이 손수 빚은 와인은 김천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매년 가을 열리는 김천 포도축제에서는 포도 수확 체험과 함께 와인 시음 행사가 진행된다.





**고령** 봄을 닮은 달콤함,  
고령 딸기

고령은 따뜻한 기후와 낙동강 수계의 비옥한 토양 덕분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딸기 주산지다. 특히 쌍림·덕곡·개진면 일대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물 빠짐이 좋아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딸기가 자란다. 매년 봄 '고령딸기축제'에서는 수확 체험과 디저트 시식이 열리고, 지역 농가들은 딸기잼·젤리·와인 등 가공식품으로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영덕·울진** 바다가 낳은 봄의 맛,  
영덕·울진 대게

동해안의 겨울과 봄은 대게로 시작해서 대게로 끝난다. 영덕과 울진은 깊은 바다에서 잡히는 살이 꽉 찬 대게로 유명하며, 대게축제 기간이면 항구마다 게 냄새와 웃음이 가득하다. 찜게·회게·버터구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되고, 게떡지밥과 대게라면은 필수 코스다. 영덕 강구항 대게거리와 울진 후포항과 죽변항 일대는 대게를 맛보는 대표 미식 코스다. 청정한 바다와 어민의 손끝이 빛나는 경북의 별미다.

**울릉** 섬의 맛,  
울릉도 홍합밥·산채비빔밥·침소

울릉도의 밥상은 바다와 산이 나란히 앉는다. 동동항과 저동항에서는 청정 해역에서 건져 올린 홍합을 쌀과 함께 지은 홍합밥이 향긋한 바다 냄새를 전한다. 홍합의 진한 국물이 스며든 밥 위로 참기름을 살짝 두르면 섬의 맛이 완성된다. 반면 북면 나리분지에서는 부지깽이, 삼나물, 미역취 등 울릉 고유종 산나물로 차린 산채비빔밥이 계절의 향을 담는다. 여기에 울릉의 약초와 해양심층수를 먹고 자란 토종 침소가 더해지면 섬의 맛은 한층 깊어진다.





너의 희망

길

## 희망의 길 위에서 미래를 열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바다 위엔 불꽃이 번진다.

그 빛 아래, 다시 초록이 자라난다.

불빛으로 수놓은 경북의 밤은 희망을 품고,

산의 상처 위에도 새순은 자란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걸으며 내일의 경북을 다시 밝힌다.

빛에 물든 길

경북의 밤은 낮과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별빛이 흐르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바다 위로 불꽃이 터진다. 고요와 환희,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이 시간, 경북의 길은 낮보다 더 눈부신 이야기를 품는다.

빛으로 완성된 보문호의 밤  
경주 보문 멀티미디어쇼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주 보문관광단지과 수상공연장 일대에서 야간 콘텐츠 '보문 멀티미디어쇼'가 열렸다. 핵심 공연은 10월 27일 수상공연장에서 열린 '천년의 신비, 내일을 날다'였다. 지름 15m 원형 구조를 중심으로 레이저·LED·불꽃 드론이 펼쳐졌고, 허니제이팀의 퍼포먼스가 전통과 미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구현했다. 보문멀티미디어쇼는 '우리의 달, 모두의 달'을 주제로 호반광장부터 시작해 수상공연장 수변길까지 이어졌다. 호반광장에는 APEC 21개 회원지역 LED 폴 전시가, 수변길에는 신라 문화유산을 모티프로 한 조형물이 설치됐으며, 보문호 수면에는 연꽃과 빛의 나비를 활용한 APEC 엠블럼 조형물이 조성됐다. 목월공원에서는 인터랙티브 패널과 QR 기반 한복·신라복 체험도 운영됐다. 빛으로 물든 가을밤의 보문단지에서 관광객들은 '밤이 빛나는 도시' 경주의 새로운 야간 매력을 체험했다.

#경북 경주시 신평동(보문관광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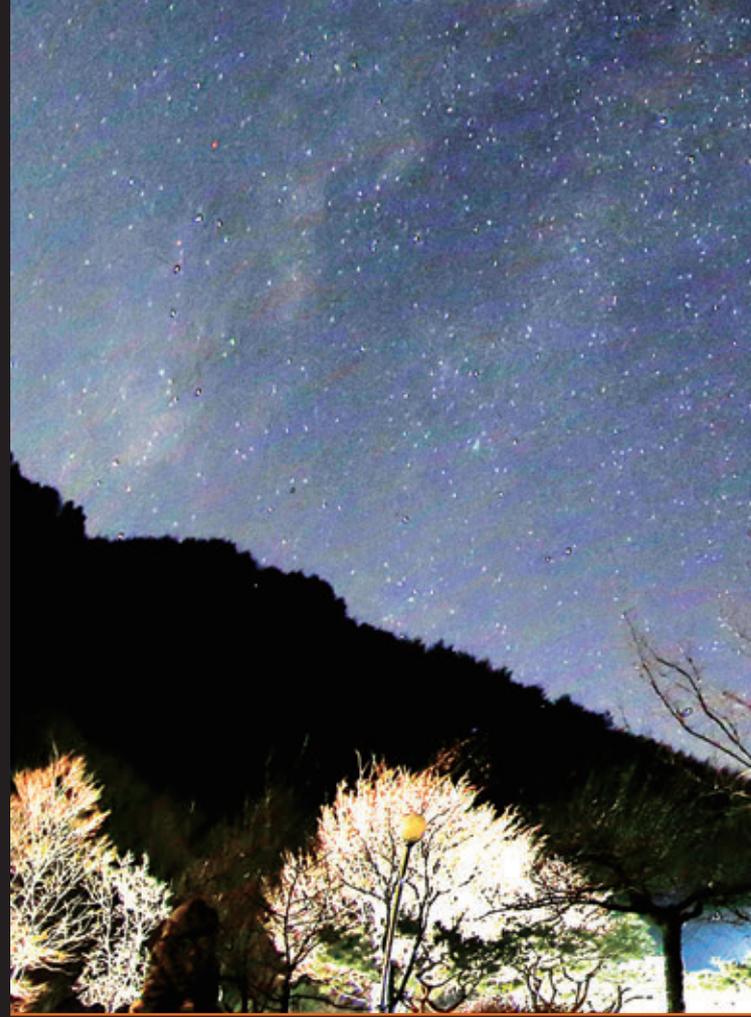




### 별빛이 가장 가까운 곳, 하늘이 열리는 밤 영양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영양군 수비면에 자리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은 2015년 10월 국제밤하늘협회(IDA)로부터 아시아 최초, 전 세계 기준 여섯 번째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IDA PARK)으로 지정됐다. 영양은 빛 공해와 다른 인공조명으로부터 영향이 적은 밤하늘인 실버등급(은)으로, 은하수와 유성을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 공원 중심부에는 영양반딧불이천문대가 있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별과 반딧불이를 함께 관측할 수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공원은 대기오염과 인공조명이 거의 없어 밤하늘의 본래 색을 되찾은 공간이다. 밤이 깊을수록 별들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우주는 놀랍도록 가까운 이웃이 된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



### 별빛이 내리는 밤, 우주를 가까이 두다 예천 천문우주센터

예천군 감천면에 자리한 예천천문우주센터는 별과 우주를 주제로 한 경북의 대표 과학문화시설이다. 센터에는 508mm 대형 반사망원경이 설치된 주관측실과 무중력 체험이 가능한 '우주환경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천문 관측과 과학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관찰하고, 밤에는 성단·성운·행성을 직접 관측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밤 진행되는 야간 천체관측 프로그램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계절별 별자리를 관찰하며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돛 위로 별빛이 가득 쏟아지는 순간, 방문객들은 눈을 반짝이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렇게 예천의 밤하늘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는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072, <http://portsky.net>







**밤바다를 수놓는 불꽃, 도시의 축제**  
**포항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념 불꽃쇼**

포항은 '빛의 도시'라는 이름처럼 매년 여름 포항국제불빛 축제로 유명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한 대규모 불꽃쇼가 열렸다.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영일대해수욕장을 무대로 펼쳐진 이번 불꽃쇼는 'APEC의 빛, 포항의 미래'를 주제로 불꽃·드론·음악이 결합

된 복합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파도 위로 터지는 불꽃이 하늘을 물들이고, 수천 명의 관람객이 한목소리로 환호했다. 빛과 바다, 사람과 도시가 하나 되는 순간 포항의 밤은 그 어떤 도시보다 뜨겁고 찬란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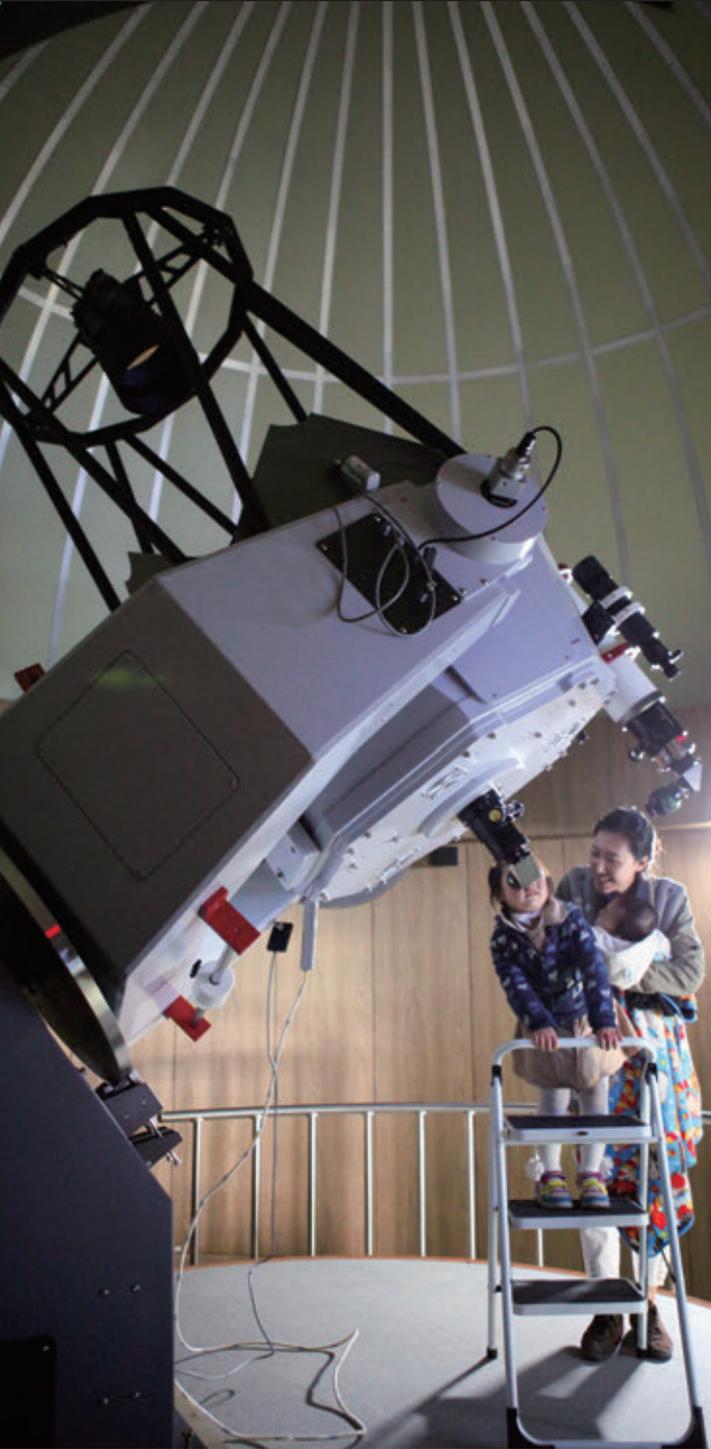


**빛으로 물든 유럽의 밤, 청도의 낭만이 되다**  
**청도 프로방스테마파크**

청도군 화양읍에 자리한 청도프로방스테마파크는 1996년 '청도테마랜드'로 문을 연 뒤, 2012년 프랑스 남부의 정취를 담은 테마파크로 새롭게 단장했다. 라벤더밭과 포도넝쿨, 유럽풍 건물들이 낮에는 알록달록한 포토존이 되고, 밤이 되면 수천 개의 조명이 켜져 환상적인 빛의 향연이 펼쳐진

다. 조명 터널, 음악분수, 불빛 정원, 별빛 거리 등 100여 가지의 테마존이 조성되어 있으며, 계절마다 주제가 달라지는 '빛축제'와 겨울철 '산타마을'은 가족과 연인이 함께 찾는 대표 야경 명소다. 밤하늘 아래 눈부신 조명 사이를 걷다 보면, 이곳이 청도인지, 프랑스의 골목인지 잠시 잊게 된다. 빛으로 피어난 유럽의 밤이 청도의 하늘을 물들인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이슬미로 272**



## 별빛이 쏟아지는 고지대, 천문학의 중심 영천 보현산천문과학관

해발 1,124m 보현산 정상에 자리한 보현산천문과학관은 국내 최대급 1.8m 반사망원경을 보유한 전문 연구시설이다. 한국천문연구원과 영천시가 공동 운영하며, 천문 관측과 과학 교육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10월에는 보현산별빛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영천의 별빛 아래, 토성의 고리를 찾아라'는 주제로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은하수와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천문 강연, 주제 전시, 교육과 체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천문대 아래 보현산 별빛테마마을에서는 천문 체험관과 캠핑장이 함께 운영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기며 잊었던 은하수를 올려다보는 경험은 아이들에게는 우주를 향한 꿈을,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 준다.

#경북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22

## 칠곡의 밤을 밝히는 평화의 촛불 칠곡 자고산 평화전망대

칠곡군 왜관읍 자고산 자락에 자리한 자고산평화전망대는 낙동강과 왜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야경 명소다. 특히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촛불 모양의 전망대'가 인상적이다. 어둠이 내릴 무렵 산 위에 은은히 켜지는 불빛은 마치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처럼 반짝이며, 자고산의 밤하늘을 환하게 물들인다.

전망대에 오르면 강줄기와 다리,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의 선을 이루며 장관을 펼친다.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과 조형물이 여행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밤이 깊어질수록 조명은 더욱 따뜻하게 빛나 '평화의 빛길'을 완성한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자고산로 200 일원



# 다시 피어나는 초록, 여행이 희망이 되는 순간

## 산불 피해지역으로 떠나는 착한 관광

올해 봄, 경북의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의성에서 시작된 불길은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지며 산과 마을을 삼켰고,  
수많은 이들이 일상을 잃었다. 그러나 잿빛 숲에는 다시 초록이 돋고,  
재가 된 마을엔 웃음이 돌아왔다. 경북은 지금 복구를 넘어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찾는 여행자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역의 희망을 잇는 위로가 된다.



### 착한 여행 실천 가이드

#### 1. 지역과 함께하는 소비

지역 상점·시장·농가에서 로컬 제품을 구매하고, 지역 식당과 숙소를 이용해 여행의 가치가 지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 2. 자연을 지키는 발걸음

복원 중인 구간의 통제선을 지키고,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합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합니다.

#### 3. 정숙한 관람과 배려

사찰·생태지구 등에서는 조용히 관람하고, 야생동물이나 주민 생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4. 산불 예방은 기본 예절

산불 피해지와 숲에서는 취사·흡연 등 모든 화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치유의 길



고운사





조문국고분군

UISEONG

## 의성

### 천년고찰의 불빛, 고운사의 재건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자락의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681년)의 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고운사(孤雲寺)'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학자 최치원이 머물렀던 데서 비롯됐다. 이번 봄, 의성은 경북에서 가장 큰 산불 피해를 입었고, 고운사 역시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조선시대 사찰 내 유일한 기로소 건물인 연수전, 그리고 계곡 위에 세워져 고운사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가운데가 불에 타 소실되면서 참담한 흔적을 남겼다. 절 마당과 주변 숲에도 그을음과 탄 자국이 이어져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산사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고운사를 감싸고 있는 주변 숲에서는 검게 그을린 능선 사이로 초록빛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되살아나는 잎사귀는 천년고찰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는 긴 과정의 출발점처럼 보인다.

고운사에서 내려와 금성면으로 향하면 조문국사적지가 이어진다. 대리·탑리·학미리 일대의 200여 기에 달하는 고분군은 의성에 고대국가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벌휴이사금 2년(185년) 신라가 조문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전하며, 발굴 조사 결과 조문국 세력이 6세기까지 이어졌음이 확인됐다. 조문국박물관에는 토기·청동기·장신구가 전시되어 있고, 고분 사이를 걷다 보면 부드러운 능선 위로 의성의 오래된 시간이 차분히 펼쳐진다.

조문국박물관





블루로드

# YEONGDEOK

## 영덕

### 검은 언덕 위로, 바람이 다시 분다

영덕은 울릉 산불로 임야 1만 6,000여 ha가 불에 타며, 전국 송이 주요 생산지의 약 40%가 소실됐다. 2012년부터 13년 연속 전국 송이 생산 1위를 이어오던 영덕군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검게 그을린 언덕 위로는 다시 바람이 분다.

해맞이공원에서 강구항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65km의 해안길인 영덕 블루로드 중 B코스(해맞이공원~강구항)는 절벽길·갯바위길·어촌길이 어우러진 가장 인기 구간이었다. 이 구간도 산불로 전소되었으나 9월 초 응급 복구를 마치고 통행이 재개되었다.

파도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산불의 흔적 위로 새 잎이 돋고, 언덕 위에는 여전히 거대한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다. 한때 검게 타버렸던 능선 위에서 다시 돌아가는 그 날개는 '희망의 바람'을 상징한다. 영덕 사람들은 말한다. "이 바람이 불길을 이겼듯, 우리 삶도 다시 돌아옵니다." 해맞이공원의 일출, 강구항의 활기찬 어시장, 그리고 언덕 위에서 맞는 바닷바람은 모두 '다시 시작하는 경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 안동

## 기억을 건너 희망을 잇다

안동은 이번 봄 산불로 2만 6,000ha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타 경북에서 손꼽히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여름을 지나며 잿빛 숲에 서서히 초록이 돌아왔다.

낙동강 위에 길게 놓인 월영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조 인도교로, 안동 시내와 도산면 월영공원을 잇는다. 총길이 387m의 이 다리는 전통 누각 양식으로 지어져 물 위를 걷는 듯한 고요한 감흥을 준다. 교각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강물 위로 부서지는 햇살은 걷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풍경을 선물한다. 특히 해질녘의 월영교는 황금빛 물결에 다리 그림자가 비치며 안동의 대표적인 낙조 명소로 꼽힌다. 강 위에 떠 있는 문보트도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이다. 달모양을 닮은 전통 보트를 타고 강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월영교의 모습은 '낙동강의 달빛을 품은 풍경'이라 불릴 만큼 환상적이다.

월영교에서 조금 떨어진 도산면 서부리 일대에 자리한 예기마을은 이전에 댐 건설로 수몰된 구 예안면의 역사를 품고 문화예술촌으로 새롭게 거듭난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출발하는 부교형 수상데크인 선성수상길은 옛 마을 터 위, 수몰된 학교 자리 등 기억이 깃든 호수 위를 걷는 특별한 길이다. 예기마을 갤러리와 공방, 찻집이 이어지는 골목과 더불어 이 수상길은 상처를 지닌 땅이 예술과 함께 다시 숨 쉬고 있다는 현장감 있는 증표다.

예기마을



# ANDONG



월영교

## 청송

### 불길을 넘어 사과향으로 물든 땅

올해 경북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은 청송군 일대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산림 2만ha 이상이 불에 탔고, 일부 마을은 피난을 겪었다. 그러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지금, 사람과 자연이 함께 일어서는 기적 같은 회복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주왕산국립공원은 그 회복의 상징이다. 기암절벽과 계곡, 폭포가 어우러진 주왕산은 '바위산의 품 안에서 쉬어가는 길'로 불린다. 대전사에서 용추폭포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는 평탄하면서도 풍경이 다양해 가족 여행객에게도 인기가.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물들고,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여행자의 마음을 맑게 씻어준다.

불탄 산비탈 아래, 청송의 사과밭은 다시 빛을 되찾았다. 해발 400m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청송사과는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덕분에 당도가 높고 향이 짙다. '한 입 베어 물면 단단한 과육 속에서 사과 향이 퍼진다'는 청송사과만의 매력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청송사과테마공원은 사과의 재배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복합 관광지다. 사과 체험장과 전시관, 야외 산책로, 전망대가 갖춰져 있으며 가을마다 수확 체험과 농가 직거래 행사가 열린다. 불탄 산의 기슭에 새로 심어진 사과나무들이 자라나는 풍경은 다시 심고, 다시 피우는 사람들의 의지 그 자체다.

사과테마공원



# CHEONGSONG

주왕산국립공원





자작나무숲



# YEONGGYANG

## 영양

### 은빛 숲길, 자작나무가 들려주는 위로

서리가 내릴 즈음,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의 깊은 골짜기에는 하얀 나무들이 뽀뽀이 선 숲이 가을빛을 머금는다. '국유림 명품 숲'으로 지정된 영양 자작나무숲은 축구장 40개 크기의 전국 최대 규모 군락지로, 다행히도 산불의 직접적인 피해를 면했다. 햇살이 수피에 비치면 숲 전체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그 풍경은 살아 있음에 대한 감사로 다가온다. 완만한 경사로 이어지는 1·2코스(총 3km)는 초보 산행객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부담이 없다. 최근에는 전기 셔틀버스가 도입돼 숲 초입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빛이 스며드는 시간마다 색감이 달라져 사진가들에게 '인생샷 명소'로 통한다. 바람이 불면 자작나무 잎이 사각거리며 속삭이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어우러진 그 소리는 불탄 산의 숲들을 대신해 들려주는 자연의 위로 같다.

이 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또 하나의 영양의 명소가 기다린다. 절벽과 강을 사이에 두고 우뚝 선 선바위는 깎아 세운 듯한 거대한 바위로, 언뜻 보면 커다란 촛대를 세워놓은 듯한 형상을 이룬다. 절벽 아래로 두 물줄기가 합류해 남이포를 이루며, 세조 때 남이 장군이 역모를 평정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선바위 지구에는 자연생태마을과 농특산물 직판장, 산촌박물관, 수변휴게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다. 사계절 맑은 물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이곳은 자작나무숲의 고요함에 이어 또 다른 영양의 절경을 보여준다.

선바위관광지



# 다시, 경북을 기억하며

한 권의 책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게인 경북>은 그 지난 시간 동안 도민 여러분과 함께 경북의 길을 걸으며 사람과 문화, 산업과 미래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이 특별한 해를 끝으로 <어게인 경북>은 이제 그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쌓아온 이야기와 기록, 그 속에 담긴 경북의 사람과 땅의 온기는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어게인 경북>을 읽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간 이 기록이 다시 새로운 경북의 내일을 여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책으로는 이별하지만, 경상북도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보이소 TV', SNS를 통해 '다시, 경북'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보이소 TV





2025년 특집호 정답: 정상

**APEC 정상회의 특집호 퍼즐 당첨자**

김소연(경북 영주시), 강정임(경북 경산시), 광상미(경북 영천시), 권선미(경북 의성군), 권진아(경북 칠곡군), 김은정(경북 봉화군), 김회태(제주특별자치도), 박미정(경북 구미시), 송준영(경북 상주시), 심혜지(경북 예천군), 이동렬(경기도 하남시), 이미진(경북 안동시), 이산하(경북 고령군), 이세이(경북 의성군), 이창훈(대구 동구), 이현지(경북 김천시), 임숙영(경북 안동시), 지재협(경북 안동시), 최용범(경기 고양시), 황정옥(경북 구미시)



경상북도 유튜브 채널 검색

